

연말 가요계, 트레저·에스파·엔하이픈·니쥬 '4세대 아이돌' 속도전

대형기획사 소속 가수들, 데뷔 전부터 주목받아
최근 빨리 많은 기록 세우는 '속도전' 중요해져
"Z세대에 맞춘 아이돌 혁신·변화는 계속될 것"

대형 가요 기획사들의 4세대 신인 아이돌 그룹 대결이 연말 가요계를 달구고 있다. 대형 기획사 소속 가수들은 데뷔와 동시에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소속사의 거대 화력 지원뿐만 아니라 선배 가수들 팬덤의 충실한 응원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에 중요해진 건 '속도전'이다. 얼마나 빨리 많은 기록을 세우느냐가 팀의 위상과 직결되고 있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200' '핫100' 1위 등을 차지하며 세계 대중음악계 중심에 자리매김한 것처럼, 차트 순위나 앨범 판매량은 팀의 인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며 팬덤을 불러나갈 발판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데뷔한 트레저는 11월까지 데뷔곡을 포함 총 3번 싱글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활동 등 외부 스케줄에 차질을 빚은 이유도 있었지만, '초고속 컴백'이다. 동시에 YG가 오래 전부터 트레저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것도 방증한다. 사실 트레저의 데뷔는 계속 밀렸다. 지난해 초 종영한 YG의 보이그룹 결성프로젝트 '보석

함'을 통해 결성된 팀이다. 애초 지난해 여름 데뷔 예정이었다. 대신 데뷔 전 온라인을 통해 선보인 각종 리얼리티로 멤버들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팬덤을 차곡차곡 쌓았다.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이어지는 각종 시상식의 강력한 신인상 후보다. 박히트와 엔터 업계의 큰손 CJ ENM이 합작한 빌리프랩 소속인 엔하이픈은 30일 데뷔 앨범 '보더 : 데이 원(BORDER : DAY ONE)'을 내놓았는데, 이미 팬덤은 신인 그룹 이상이다. 지난 여름 엠넷 '아이랜드(I-LAND)'에서 수많은 미션을 수행한 뒤 최종적으로 글로벌 팬들의 선택을 받은 정원, 희승, 제이, 제이크, 성훈, 선우, 니키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데뷔 전부터 틱톡,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V LIVE 등 5대 SNS에서 각각 '밀리언 팔로워'를 달성하며 글로벌 팬덤을 확장하고 있다. 데뷔 앨범의 선주문은 30만장을 넘겼다. 일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니쥬는 더욱 눈에 띄는 프로모션을 펼쳤다. 오는 12월2일 '정식 데뷔'를 앞두고 이미 지난 6월30일 '프리 데뷔'에 각종 기록을 썼었다.

프리 데뷔곡 '메이크 유 해피(Make you happy)'로 걸그룹 중 최초로 오리콘 스트리밍 수 1억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정식 데뷔 이후에는 각종 새로운 기록을 추가로 더 세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로운 기록을 썼다. 데뷔 29일만인 12월31일에 방송되는 '홍백가합전' 출연을 확정했다. 이미 팬덤을 보유하며 활동 중이지만, 12월 2일 발매되는 일본 정식 데뷔 싱글 '스텝 앤드 어 스텝'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2005년 일본 보이 듀오 'WaT'가 데뷔 1개월 29일만에 세운 '홍백가합전' 사상 최고속 출연 기록을 15년만에 경신했다. 일본 주요 언론도 니쥬의 '홍백가합전' 입성 소식, 특히 사상 최고속 출연 기록을 다뤘다. 사전에 프로모션이나 노출된 정보가 없음에도 에스파의 화력도 대단하다. 지난 17일 공개된 에스파의 데뷔곡 '블랙 맘바(Black Mamba)'는 3일치 집계만으로 28일자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100위로 진입했다. K팝 아티스트 데뷔곡으로는 해당 차트 최고 순위다. 지난 9월 신설된 빌보드 글로벌 차트(미국 제외)는 매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지역 및 국가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음원 판매) 수치를 기반으로 순위를 매긴 차트다. 더불어 미국을 포함해 집계하는 글로벌 200 차트에서는 183위에 올랐다.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5위, 리릭과인드 글로벌 차트에서 19위를 차지했다. 또 해외 컨설팅 에이전시 그룹 밀즈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블랙 맘바'는 세계 95개 국가의 음원 차트에 진입했다. 4세대 아이돌 팬덤의 주축인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통한다. 변화에 빠르고 민감하며 적극 수용한다. 이들은 4세대 아이돌 그룹이 가져온 '속도전'에 이미 익숙하다.

트레저의 빠른 컴백, 아바타를 결합한 에스파의 가상현실, 연결을 강조하는 엔하이픈의 메시지, 국적을 초월한 K팝 그룹 니쥬 등 기존 아이돌 그룹 세대의 문법과 공식과 다른 방식의 4세대 아이돌 그룹이 열광하는 이유다. 아이돌 업계 관계자는 "Z세대에 맞춘 아이돌 그룹의 혁신과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요즘 세대에 맞춘 팀 성격과 프로모션을 위해 대형 기획사들도 꾸준히 젊은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0 AAA' 2관왕 BTS...이정재·김수현·임영웅 수상 피날레

온택트로 진행...이특·박주현 MC 맡아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다이너마이트가 조금이나마 좋은 에너지와 위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 또한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AAA 올해의 노래 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은 "또 아미가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노래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같다.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다"며 아미들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전한 영상으로 소감을 전했다. '2020 Asia Artist Awards'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28일 오후 8시15분부

터 본 시상식 1부와 2부, 그리고 레드카펫 순으로 방송됐다. 세계 최초 배우와 가수 부문 아티스트 통합 시상식 '2020 Asia Artist Awards'(2020 AAA)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택트(On-tact)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따라 진행된 '2020 AAA'는 2016년부터 5년 연속 'AAA'와 인연을 맺은 이특과 올해 새롭게 MC를 맡은 박주현이 진행을 맡았다. 100% 팬들의 투표로 뜨거운 화제를 낳았던 'AAA 최애돌 인기상'에는 방탄소년단(남자 인

기가수상), 트와이스(여자 인기가수상), GOT7 박진영(남자 인기배우상), 송지호(여자 인기배우상), 임영웅(트로트 인기가수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AAA Best of Best 스타뉴스 x 최애돌' 상까지 거머쥐며 2관왕을 달성했다. AAA 올해의 배우 영화 부문에는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명품 연기를 선보인 배우 이정재가, AAA 올해의 배우 드라마 부문에는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 특급 연기를 펼친 김수현이 차지했다. 'AAA 올해의 가수'에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트와이스가, 'AAA 올해의 퍼포먼스'에는 GOT7, 'AAA 올해의 앨범'에는 NCT, 'AAA 올해의 스테이지'에는 몬스타엑스, 'AAA 올해의 트로트'에는 임영웅, 마지막으로 'AAA 올해의 노래'에는 방탄소년단이 이름을 올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정재는 수상 소감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에서 레이 역할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독특한 캐릭터를 만나게 돼서, 또 함께 참여한 배우와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재밌고, 즐거운 작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좋은 캐릭터를 만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수현은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촬영하면서 아픈 상처와 사연들을 가진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참 궁금했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변화의 결과물을 보며 저도 행복했다. 저의 연기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좋은 변화 보여드리겠다. 노력하겠다. 지켜봐달라"는 멋진 소감을 전했다. AAA 올해의 트로트 상을 수상한 임영웅은 "상을 받을 때마다 꿈만 같고, 너무 영광스럽다.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들, 시상식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받아도 영광인데, 세 개씩이나 오늘 받게 돼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며 감격찬 모습을 보였다.

솔비, 코로나19로 콘서트 연기...다음달 5일→내년

가수 겸 화가 솔비(권지안)가 다음달 5일로 예정했던 콘서트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솔비 소속사 측은 27일 공식 SNS를 통해 솔비의 콘서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상으로 인해 연기된다고 밝혔다. 솔비는 당초 다음달 5일 서울 성수동 플레시비브에서 '아트 테라피' 콘서트를 열

계획이었다. 소속사 측은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와 공연장이 제시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좌석 간 거리 두기 및 각종 절차와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팬들과 아티스트 그리고 제작진의 안전과 보호가 우선이라고 판단돼 연기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 솔비의 공연을 예매하고 기다려주신 모든 관객분께 아쉬움과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방역 지침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추후 공연까지 아티스트와 스태프 모두 방역에 만전을 기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윤아, 유튜브 채널 개설...유튜버로 변신

영상 게재 전 이지만 구독자 1만명 돌파해...'인기 실감'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인 윤아가 유튜버로 변신한다. 윤아는 27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0. 11. 27 PM 08:00 공식 유튜브 오픈"이라며 한 장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이미지는 '유튜브 오픈, 윤아의 '썸 원더풀 데이(So Wonderful Day)'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그는 '썸 원더풀 데이' 유튜브 채널 개설을 예고하며 주소도 첨부했다. 유튜브 채널에는 아무런 영상도 게재되

지 않았지만,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이 이미 구독해 윤아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윤아는 오는 12월11일 첫방송하는 JTBC 새 금토극 '히쉬'에 출연한다. 이 드라마는 팬데보다 큐대 잡는 날이 많은 '고인물' 기자와 밥은 팬보다 강하다는 '생존형' 인턴의 생방 성장기이자, 월급쟁이 기자들의 밤벌이 라이프를 그린 다. 뉴스스

'윤식당3' 최우식 합류...내년 1월 방송

코로나 여파로 국내에서 문 열 예정

나영석 PD의 '윤식당3'에 배우 최우식이 합류한다. tvN 측은 27일 뉴스에 "현재 촬영 중인 '윤식당3'에 기존 멤버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박서준 외에 최우식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중 방송 예정"이라며 "촬영 장소, 시기 등은 원활한 촬영을 위해 밝힐 수 없다. 방송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식당'은 배우 윤여정을 메인 셰프로 두고 정유미, 이서진, 박서준이 함께 해외에서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가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발리를 시작으로 2018년 스페인 가라치코에서 윤영,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스태프 확진

촬영 일정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협력업체 직원에 이어 스태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넷플릭스 측은 27일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진 중 한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당국과 역학조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촬영 일정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금 우리 학교는'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 제작일정을 중단하고 스태프와 배우 전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이번 추가 확진자는 A씨와 같은 업체 소속으로 그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마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 속 한 고등학교에 고립된 이들과 그들을 구하려는 자들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겪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윤찬영, 박지후, 조이현, 문보, 유인수가 주연을 맡았다.

계속해서...